

학부 유학생과 한국어 모어 학습자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모국 설화의 교육적 활용 전략*

한새해**

<차례>

1. 들어가며
2. 학부 유학생 현황 및 교육 변화의 필요성
3. 왜 모국 설화인가?
4. 국내외 학습자의 상생을 위한 모국 설화의 교육적 활용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설화를 활용한 교육이 국내외 학습자 모두를 질적, 학문적 차원에서 수렴, 수용하는 흥미로운 강좌로 운용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현재 국내 대학 내 유학생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강의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현장에서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저마다의 입장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화의 교육적 활용은 학부 유학생과 한국어 모어 학습자 양 구성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상호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때 활용되는 텍스트는 한국의 설화뿐 아니라 타국/모국의 설화가 선택될 수 있으며, 수강생은 해당 설화를 교수자와 함께 능동적으로 ‘읽기-듣기-쓰기-말하기’의 과정을 거치며 습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습 방안은 유학생 및 국내 학생 모두에게 옛이야기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한국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이해하는 기회로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에 구체적인 강의 계획과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2212)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학습자들의 발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설화 교육이 함의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학부 유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은 이제 유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학습자 모두를 융합하는 다방면의 기초 연구 방안으로 확장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이러한 학습 방안은 지속해서 유입되는 대학 내 외국인 학습자 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문제로 확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유학생, 한국 학생, 설화, 쓰기 교육, 상호 이해

1. 들어가며

본고는 대학 내 글쓰기 교육에서 유학생과 한국어 모어 학습자 간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해 모국 설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한국어 모어 학습자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를 언어의 기본 모체(母體)로 학습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자신이 국민으로 속해 있는 국가 곧 모국어 사용자와는 구분이 필요하다.¹⁾ 요컨대 과거 단일 민족성을 중시하던 인식이 강하였던 한국이 21세기에 들어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나 교민 등의 후손의 경우, 국민적 귀속을 나타내는 모국의 언어 즉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

1) 물론 모어와 모국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라든지 모어와 모국어를 달리하는 언어 소수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다수자 쪽에서 보면 같은 모어를 지닌 소수 민족이며, 본국(한국 또는 북한)에서 보면 같은 민족이면서 모어를 달리하는 언어 소수자가 된다.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18~19쪽 참조.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국내 대학에 유입되는 국제 학생의 국적 또는 출신 계위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계가 단연 압도적이었으며, 입국 경로나 동기 또한 단선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²⁾ 그러나 2024년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지역별 유학생의 비율은 미주 및 유럽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생 총인원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³⁾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추이는 학부 강좌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국제 학생 전용 분반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 학습자들과 한 데 모여 진행되고 있음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지하듯, 한국 내 유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국내 대학 운영 여건상 전공 및 교양 교과 전 영역에서 유학생들만을 위한 전용 분반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⁴⁾ 따라서 학부 유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은 이제 유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학습자 모두를 융합하는 다방면의 기초 연구 방안으로 확장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일명 재외국민으로 통칭되는 학습자들의 국내 유입 문제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어를 모어로 갖

2) 한세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향상을 위한 설화의 비교문화적 활용 방안」, 『국제어문』 83, 국제어문학회, 2019, 212~216쪽 참조.

3) 본고 2장의 ‘학부 유학생 현황 및 교육 변화의 필요성’ 참조.

4)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 외에도,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는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의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인가 없이 증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정원 감축 시행으로 학생충원이 어려운 일부 대학들의 경우, 재정란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실제 적응, 학업,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김지하·조옥경·문보은 외 3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20, 3~5쪽 참조.

지 않는 재외국민 학생들의 경우 국적은 한국인으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다소간 층차가 있겠지만) 교육 과정은 내국인 학습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해외 체류 기간이 적고 많음에 따라 대학 내 적응도가 다르며, 애초에 타국에서 출생한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내국인 학습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외국민 학생들도 왕왕 있다. 반대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국적은 외국인이나 모어를 한국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학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한편,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 학생의 경우, 교과목 운영자의 수업 방안이나 지침에 따라 팀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협업 수업 등을 진행할 때,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데 다소 회의적이다.⁵⁾ 특히 절대평가로 진행될 수 없는 대인원 강좌일 경우, 이러한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팀 점수로 부여되는 과제의 경우, 내국인 학습자는 유학생과 협업 과제를 한다면 (내국인 학습자들로만 구성된 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생들과 협업 수업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국제적 감각을 기르는 등 다문화 경험을 기대하는 긍정적 입장 또한 존재한다.⁶⁾ 그러나

5) 박근영·김본영·오진영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조사방안 탐색」(한국교육개발원, 2022, 22쪽)에 따르면,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 대학생에게 갖는 부정적 우려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1. 조별 과제 등 무임승차 문제와 이로 인한 학점 하락 2. 또래 집단 내 위계질서 붕괴 3.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6) 민혜영, 세린즈, 박지훈, 「대학 국제화의 진통: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소통 부재 및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 2019, 5~32쪽; 전형길, 「교양교육과정에서 내·외국인 협업 수업에 대한 연구: A대학의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1, 2019, 381~410쪽; 이진선·강영숙·박시균, 「한국어 교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5, 2021, 96~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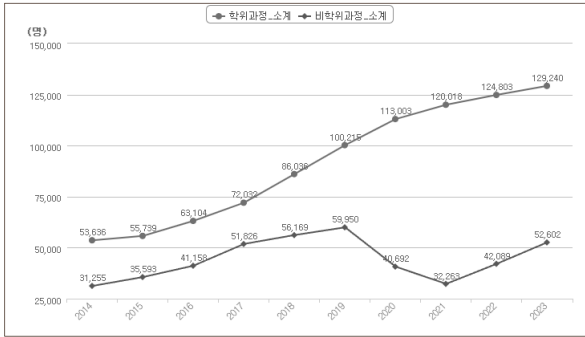
이 같은 입장은 해당 외국인 학습자의 이르반 ‘출신 국적’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교강사 주도의 합동 수업 외에는 내·외국인 학생자들은 그들 소속 집단끼리 그룹이 나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대학 내 학습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여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학부 유학생의 분포 양상과 그들에게 요청되는 교육적 토대를 점검하고 내국인 학습자와 모두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국내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을 토대로 우리 대학 내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내의 학생들을 위한 공통의 글쓰기 교육에서 왜 모국 설화가 합당한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교육 방안 일환으로서 특히 ‘모국 설화’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참고 사례로 제시할 교과목은 ‘한국문학과콘텐츠’로서 그 효과적인 수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전공 및 교양 교과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용 및 설계에까지 도움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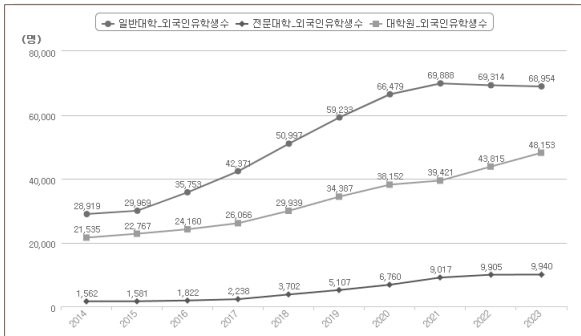
2. 학부 유학생 현황 및 교육 변화의 필요성

2023년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내 유학생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20~2021년에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위 과정 유학생의 경우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국내 유학생 현황⁷⁾



<표 2> 학위과정별 국내 유학생 현황⁸⁾



전문대학을 포함한 일반대학에서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표 1>를 참조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고등교육[학위과정] 기관 전체의 유학생수를 살펴볼 때,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29,240명으로 2014년 대비 75,604명(134%) 증가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히 일반대학 유학생의 경우, 2014년 28,919

- 7)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3.4.1.집계) 통계를 논고에 필요한 범주만 선택하여 도표화함. <https://kess.kedi.re.kr/index>
- 8)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도별 학생 만명당 외국인 유학생 수’(2023.4.1.집계)의 통계를 논고에 필요한 범주만 선택하여 도표화함. <https://kess.kedi.re.kr/index>

명에서 2023년 68,954명으로 40,035명(138%) 폭증하였고, 동시기 전문대학 유학생 인원수도 8,378명(536%) 대폭 증가하였다. 대학원 유학생 수 역시, 2023년 48,153명으로 2014년 대비 26,681명(123%) 급증하였다.

〈표 3〉 연도별 학생 만명당 외국인 유학생 수⁹⁾

(단위: 명)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고등교육 기관 전체	재적 학생수	3,668,74	3,326,733	3,276,327	3,201,561	3,117,54	3,042,848
	외국 학생수	53,636	100,215	113,003	120,018	124,803	129,240
	학생 만명당 외국 학생수	146.2	301.2	344.9	374.9	400.3	427.7
일반 대학	외국 학생수	28,919	59,233	66,479	69,888	69,314	68,954
	학생 만명당 외국 학생수	135.8	295.9	335.6	360.6	367.0	371.6
전문 대학	외국 학생수	1,562	5,107	6,760	9,017	9,905	9,940
	학생 만명당 외국 학생수	21.1	79.3	108.7	156.5	183.7	195.2
대학원	외국 학생수	21,535	34,387	38,152	39,421	43,815	48,153
	학생 만명당 외국 학생수	650.9	1077.2	1190.0	1,204.0	1,312.2	1430.6

종합적으로 201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3,668,747명)의 유학생 수는 1.5%(146.2명)에 불과했었으나, 2023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3,042,848명)의 4.2%(424.7명)를 차지하며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보합하듯,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이미 정원의 대부분을 국제 학생들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10년간 국내 유학생 현황 추이를 볼 때, 우리 대학 내 외국인 학습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대학에서도 정원 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관련 단과대학을 신설하거나 관련 교육

9) Loc. cit.

커리큘럼 등을 재정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은 아시아 국가 학생이며, 2023년 통계 기준으로 볼 때[<표 4> 참조] 중국 46.7%(60,356명), 베트남 20.5%(26,500명), 우즈베키스탄 7.2%(9,278명), 몽골 4.6%(5,891명), 네팔 2.2%(2,891명) 순으로 집계된다.

<표 4> 출신국가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¹⁰⁾

(단위: 명, %)

연도	합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네팔	기타	아시아
'23년	129,240	60,356(46.7)	26,500(20.5)	9,278(7.2)	5,891(4.6)	2,891(2.2)	24,324(18.8)	121,434(94.0)
'22년	124,803	60,521(48.5)	26,915(21.6)	8,249(6.6)	4,800(3.8)	2,285(1.8)	22,033(17.7)	117,555(94.2)
'21년	120,018	59,774(49.8)	24,984(20.8)	7,658(6.4)	4,916(4.1)	2,620(2.2)	20,066(16.7)	113,259(94.4)
'20년	113,003	59,177(52.4)	19,160(17.0)	7,441(6.6)	5,230(4.6)	2,246(2.0)	19,749(17.5)	106,467(94.2)
'19년	100,215	56,107(56.0)	13,221(13.2)	5,230(5.2)	4,569(4.6)	1,524(1.5)	19,564(19.5)	93,650(93.4)
'18년	86,036	51,790(60.2)	7,801(9.1)	3,147(3.7)	3,457(4.0)	1,145(1.3)	18,696(21.7)	79,408(92.3)
'17년	72,032	44,606(61.9)	4,698(6.5)	1,721(2.4)	2,723(3.8)	601(0.8)	17,683(24.5)	65,487(90.9)
'16년	63,104	38,958(61.7)	3,466(5.5)	1,083(1.7)	2,279(3.6)	525(0.8)	16,793(26.6)	56,702(89.9)
'15년	55,739	34,887(62.6)	2,579(4.6)	707(1.3)	2,145(3.8)	491(0.9)	14,930(26.8)	49,908(89.5)
'14년	53,636	34,482(64.3)	2,148(4.0)	481(0.9)	2,236(4.2)	409(0.8)	13,880(25.9)	48,031(89.5)

그런데 <표 4>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한편,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 유학생 수요 국가 학생 비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중국 국적의 학습자가 전체 유학생 비율의 64.3%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 46.7%(-17.6%)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유입되는 학위과정 유학생이 급

10) (1)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출신국가별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수 / 해당년도 학위과정의 총 외국인 유학생 수) × 100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에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이외의 모든 국가가 포함됨. (4) 아시아에는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수가 포함됨. ※ 상기 <표>는 '23년 기준 국내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국가 순으로 나열함. 한국교육개발원(KEDI)

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다른 출신 국가 유학생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졌다는 의미이지, 중국인 전체 학생 수는 2023년 60,356명으로 2014년 대비 25,874명(+75%) 증가한 것이다.

한편, 베트남인 유학생은 2023년 20.5%(26,500명)이며, 2014년 대비 1,134%(24,352명)로 비약적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동시기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도 2023년 7.2%(9,278명)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29%(8,797명) 폭증하였다. 곧 2014년 베트남과 우즈베크 출신 비율이 과거 전체 유학생의 4.9%(2,629명)에 불과했었으나 2023년 27.7%(35,778명)까지 상승된 것이다. 2023년까지 최종 집계된 위 자료를 놓고 볼 때,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이 두 국가의 유학생 송출국 증가 비율은 신흥 유학수요로서는 단연 우세하다.¹¹⁾

이밖에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등 주요 국가를 제외한 ‘기타 국가’ 유학생들의 수도 2023년 24,324명(18.8%)으로 지난 2014년 대비 73,403명(153%)로 증가 추세이다.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국내 대학으로 유입되는 유학생들의 출신국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주요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중국계로 다소 한정적이었다면, 2023년에는 남미, 아프리카, 유럽 지역 등에서의 다양한 출신국 학생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의 니제르,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등 국적의 유학생이 합류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의 비누아투 유럽의 몰타 등도 대표적인 예이다.¹²⁾

11) 베트남 미디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한국어 베트남인에게 인기 있는 해외 유학지인 이유는 “유학비용이 싸고, 무엇보다도 입국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 곧 “실제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 유학생의 최대 80%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학생서류로 유학이나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an phung, 「한국내 외국인유학생 최다국가는?...베트남 7만212명으로 1위, 『INSIDEVINA』, 2023-4-14.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7> (2023-9-14 접속) 본고 주) 15의 내용도 참조 바람.

이처럼 유학생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전공 영역에서도 특히 ‘순수 학문’을 배우려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¹³⁾ 기존의 유학생들이 주로 선호했던 학부 영역은 통상 ‘실용 학문’으로 짐작되던 경제학, 경영학 등이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은 국내 대학의 인문계나 영미문화계 또는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등 ‘순수 학문’을 지원하며 국어국문학/철학/영미어문/중국문화/사회학/생명과학 전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전공 범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K컬처로 불리는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관심은 국제 학생들로부터 신문방송학이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공과 같은 지식융합미디어 등의 학습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빠트릴 수 없다.

2023학년도 국제 학생에게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표> 5]에 따르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의 가장 큰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이다. 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K-POP이나 영상 미디어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에 관련 지식 등을 쌓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언어, 음식, 패션 등에 대한 호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곧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유학이라는 직접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한국의 높은 대학 교육 수준’을 들었다. 국제 학생들의 경우, 한국 사회의 열띤 교육열과 입시 경쟁의 치열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최종 관문인 대학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밖에 부모의 이직으로

12) 교육부에서 공시한 2014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2014. 4. 1 기준 집계)와 2023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2023. 4. 1 기준 집계)를 비교·대조하여 작성하였음.
<https://www.moe.go.kr/main.do?s=moe>

13) 본 연구자 소속 대학의 수업 사례에서의 자체 조사 결과이며, 특정 대학의 개별 사례일 수도 있다. 순수 학문 수요 추이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후속 연구를 통해 유학생 유입이 시작된 이후의 학문 수요 양상 등을 통계화하여 밝히도록 한다.

인한 거주지 변화, 거리상의 이점, COVID-19 등 개별 사정에 따른 이유가 소수 있었다.

〈표 5〉 국제 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이유¹⁴⁾

질문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응답	<p>*한국 생활 나랑 잘 맞다고 생각 해서, 미드야 산업 넘 잘돼고 있음.</p> <p>*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아이돌과 kpop 좋아하니까 그때 결심했어요.</p> <p>*처음에 여행 왔을때는 한국을(나라) 좋아했어서 다시 공부하러 왔어요.</p> <p>*어렸을 때 한국으로 이사와서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해서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싶었어요.</p> <p>*한국인의 옷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친구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요.</p> <p>* 저는 고등학교 때 K-POP에 빠져서 한국 대학을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K-POP에 대한 예전보다 관심이 줄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아직도 좋아합니다.</p> <p>*독일 회사원 생활을 나의 마음에 안 들어서 3년 전에 한국에 살게 됐는데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일로 바꾸기 위해 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었다.</p> <p>*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가서요.</p> <p>*한국 문화와 한국을 좋아하는 대학교육 수준이 높습니다.</p> <p>*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너무 발전되어 있고, 한국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공이라는 전공을 공부하게 되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p> <p>*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어 처음에 독학하게 되었고, 한국가면 한국어도 쓸 수 있고 영어수업도 들을 수 있으니까 동시에 2언어를 쓸 수 있는게 제일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p> <p>*2019년에 TV 프로그램을 봤다가 한국에 많은 관심이 생겨서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으면 직접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오게 됐다.</p> <p>*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어렸을때 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p> <p>*저는 한국 문화와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에왔습니다..</p> <p>*나는 음식 과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중학교부터 유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한국의 미디어 전공이 세계에서도 유명했으니까 한국에서 유학하는 곳을 정했습니다.</p> <p>*사실 예전에 다른나라에서 유학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도 너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와 나의 고향과 비슷해서 편리합니다.</p> <p>*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됐다.</p> <p>*한국은 제 고향에서 가깝고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대학들과 교수님들이 있어서 한국에 유학 하고 싶습니다.</p>

14) 2023-2학기, 본 연구자의 담당 강좌를 수강한 유학생이 응답한 내용을 일체의 교열 없이 기술한 것이다.

	<p>*집이 가깝고 한국의 문화가 좋다.</p> <p>*K-POP을 좋아해서 아이돌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p> <p>*한국대학은 경영학이 유명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p> <p>*어학당에 다닐 때 부모님이 한국대학교에 다니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p>
--	--

정리하면, 국제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 학습을 위한 동인(動因)인 교육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교적 저렴한 유학비용 대비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혜택이 늘고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유입되는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 졸업 이후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리규제 효과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비자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¹⁵⁾ 곧 한국 진출이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국제 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진학을 선호한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출신율의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대학과 사회 각계 도처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인 듯하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2027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해외에 출국하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¹⁶⁾

15) 현재까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 직종에 제한과 규제 등의 제약이 강하였고,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학교육 현장의 흐름은 기존 논의에서 지적한 바처럼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유학생 송출국에서 주요 유학생 유치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⁷⁾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국제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이 한국어 모어 학습자와 필연적으로 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 전환할 시기임을 시사한다.

종래의 국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주로 국제 학생 집단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초급/중급/고급 분반 등으로 나뉜 수준별 교육과 학문 활동을 고민했었다면, 이제는 그 스펙트럼을 넓혀 국내 학습자와 함께 혼용된 교육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글쓰기 교육의 방향이 단순히 국내외 학생을 갈라낸 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 학생들과 내국인 학습자가 능동적 협으로 상호 발전 변화하기 위해, 혼합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효율적 대책 마련을 준비할 때이다.

3. 왜 모국 설화인가?

흔히 신화·전설·민담이라고 지칭되는 설화¹⁸⁾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16) 최종오, 「전문대학의 국제교류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12, KNU기업경영연구소, 2021, 141쪽 관련 연구물 참조.

17) 박근영·김본영·오지연,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조사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22, 3쪽.

18) 흔히 설화를 신화·민담·전설 등으로 구획하기도 하지만, 실상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 종족이나 역사집단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신화는 전설로, 때로는 민담으로 변이되어 그 사이를 오가기 때문이다. 곧 신화·전설·민담은 후대의 편이에 따라 설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나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세해,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55, 2021, 274쪽.

지닌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이어져 있는 현재적 이야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서사의 가치는 ‘오늘날 왜 고전을 학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게 한다. 곧 과거 공동체의 사유가 지금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존재론적 성찰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이미 과거로부터 인간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며,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등의 지적 호기심을 가져왔으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로부터 신(神)을 창조하기도 했고 혹은 신으로부터 왔다고 믿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이러한 근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현상세계 너머에 있는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거나 미지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설화를 활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현재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소환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찾는다.

뿐만 아니라 설화는 오늘날 문화콘텐츠 가운데 주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웅담이나 신화·전설의 서사 구조를 모사한 각종 콘텐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관광문화 개발 사업 등의 각종 분야에서 설화의 이야기 구조는 차용되고 변주하여,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처럼 설화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상력을 제공하는 원천이기에 창작의 모태를 신화·전설·민담을 포함한 고전 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육적 강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설화를 비롯한 각종 고전과 옛이야기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 출판물 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거점하고 있다. 특히 글자를 읽기 어려운 학령의 유아나 문식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구술된 텍스트로써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고전 텍스트에서 접한 이야기 서사를 통해,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시공간의 과거를 접하고 문화를 이

해하게 된다. 기실 아이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단순히 문자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호작용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¹⁹⁾ 이 의미는 오세정의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기호는 매끈한 지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층위의 의미체계 속에서 약호화 encode되고 해호화 decode 된다. 이러한 종합적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해당 언어기호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²⁰⁾에서 정확히 설명된다. 결국 아이가 제대로 된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어기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와 같이 설화를 활용한 유아동의 언어 문화 학습 방안은 외국인인을 위한 교육에서도 목표어인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유효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²¹⁾ 곧 전공 수업 내 설화의 활용은 한국의 지리, 역사, 자연환경, 생활문화, 가치의식 등이 용해되어 있는 텍스트이면서도, 플롯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교육하기 용이하다.²²⁾

19) 오세정, 「한국 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11쪽 참조.

20) 오세정(2014), 위의 논문, 111쪽.

21) 그러나 이 의미가 유아동과 외국인의 학습 능력이 동일하다는 맥락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심사자께서도 언급하였듯, “외국인은 일반적 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기존 지식은 충분할 수 있으며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아는 사용 가능한 어휘의 범위가 이해력에서 차이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약호와 해호로 신화소를 해석하는 본 수업의 과정은 광포설화의 보편성의 의미를 추출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어 문화교육의 일환인 동시에 각 나라의 민족적 문화적 특수성이 함께 이해될 수 있는 비교문화적 논의로 확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전제라는 점을 덧붙인다.

22) 물론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체감하는 학습의 깊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화 교육이 유용한 것은 초급자에게는 작품 읽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며, 중·고급자에게는 내포 의미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설화는 (학습 격차가 심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해 일종의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공 수업 내 설화를 활용할 때, 한국어 모어 학습자의 경우는 문식력이 없는 유아동을 위해 고전 텍스트를 읽어주던 부모의 입장과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된 부모는 자·타의적으로 고전을 다시 읽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읽게 된 고전은 단순한 스토리 이해를 넘어 일종의 ‘새롭게’ 읽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미 익숙한 서사의 구조 속에 인물들 간의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 갈등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가나 쉽게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등을 인지할 수 있다. 혹은 기존에 질서에서 그저 당연하다고 이해했던 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결코 당연시할 수 없다거나,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 등 개개인의 역량 차에 따라 새로운 이해와 성찰을 마련하게 한다. 가령, 영웅의 일대기에서 영웅의 승전이나 과업의 보상이 응당 ‘공주 또는 미녀’ 등의 여성으로 환원, 정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인가?’ 또는 ‘여성은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단적인 예다.

결국 한국어 모어 학습자들을 위한 설화의 활용은 익히 알고 있던 고전 텍스트를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낯설지 않은 것으로부터 낯설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곧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통념이나 가치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약호(code)를 재발견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이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내·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접근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학습자간의 상호 이해와 연대는 여타의 텍스트보다 빠르게 진입 가능하다. 이질적인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한 데 모인 전공 수업에서 설화 문학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보편적으로 세계 어느 민족이나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거나 신성시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신성한 존재와 관련한 서사는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감이 되었고 여전히 현대에도 다시쓰기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적 서사는 문화권과 민족에 따라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지닌다. 예를 들어,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모아나>는 태평양 폴리네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마우이 신화를 차용한 것으로, “창세 모티프, 트릭스터 모티프, 영웅 모티프 등 전형적인 신화소가 결합”²³⁾된 창작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디즈니의 <모아나>²⁴⁾에서 거대한 형체를 한 여신 테피티가 그 자체로 섬이 되는 이야기는 제주(濟州)의 산과 섬을 창조한 <설문대할망> 설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례로 창조신(創造神)이 거구(巨軀)의 형태로 등장하는 서사로는 한국의 <마고할미> 설화가 있고, 가까운 중국의 경우도 <반고신화>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설화의 보편적 구성원리를 상기한다면, 이러한 모티프는 여타의 신화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신화소가 된다. 곧 설화 텍스트의 활용은 만국의 설화가 지닌 근원성과 원형성을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고유성과 동시에 각 나라[모국]만의 민족적 문화적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 모어 학습자의 경우, 정작 우리 고유의 신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요컨대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창세 신화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내국인 학습자에게 익숙한 신화는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는 건국 신화가 주를 이루며, 구술 전승된 무속 신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 제주(濟州)의 무속 신화는, 창세 신화로부터 시작하여 신의 이야기와 관련한 다양한 본풀이²⁵⁾들이 비교적 그 원형을 잘 유지하며 전해

23) 오세정, 「신화 다시쓰기와 치유 과정으로서의 정체성 탐색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017)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5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119~120쪽.

24) 2017년 개봉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모아나>는 주인공 모아나와 반인반신의 마우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통의 과업을 수행하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25) 제주도에서는 무속 신화를 일컬어 신들의 내력을 풀어서 전하는 이야기라고 하여

져 온 서사 무가이다. 주지하듯, 신들의 고향 혹은 ‘신들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제주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일만 팔천의 토속신이 있다고 전해진다.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이 제주에는 400여개를 헤아리는 당 곧 신의 집이 있으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구(巫具)와 노래로 신들을 불러내려 산자들의 안위와 복락을 빌었다. 신화의 맥락이 거의 자취를 감춘 한반도에서 ‘제주의 신화’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생성된 독특한 문화와 고대인들의 원형적 사고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학 자료이기도 한다. 곧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모진 수난을 겪었음에도 굳이라는 형태로 신화 곧 본풀이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한국인 모어 학습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다시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된다.

종합적으로 인간의 근원적 호기심과 그 원류를 찾고자 한 설화 문학의 기원과 역사로 보자면, 설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로 추출된다. 다시 말하면, 설화 텍스트에 함의된 공통 기반의 이해는 내·외국인 학습자 모두로부터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된다. 이러한 전제하 다시 개별 국가들의 입장이 놓인 특수한 지리·환경·문화적 요인 등을 분석해 나간다면, 그 개별 국가 설화 간의 차별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먼저 “한국의 설화를 읽으면서 한국인의 심성이나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비교·대조하는 과정”과 결부시키면서 한국문화의 고유성이나 독자성 등을 견지하는 데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²⁶⁾한다. 그리하여 설화가 지닌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은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학습자 모두의 흥미를 자극

‘본풀이’라고 한다.

26) 양민정, 「전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장자못전설〉을 중심으로」, 『世界文學比較研究』 27,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09, 23~43쪽.

할 수 있을 만한 유용한 학습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설화가 지닌 정체성을 자각한 이후에는 ‘현재 우리의 세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를 주목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인 설화의 내포와 외연을 정립할 수 있다.

따라서 논고는 국내외 학습자가 공존하는 교육에서 양자 모두에게 유효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공동체가 조우할 수 있는 ‘설화 텍스트’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의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의 효용성과 가치를 검증하는 동시에 그 적시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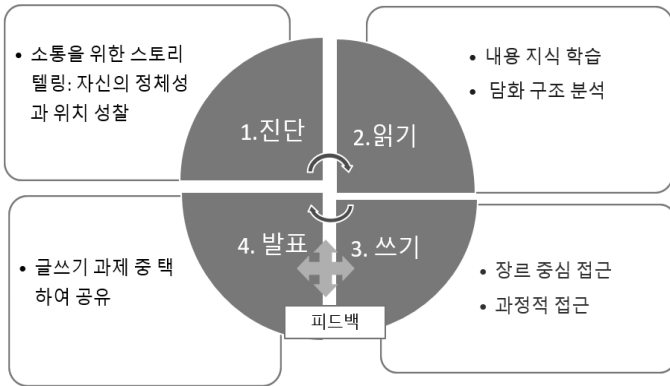
4. 국내외 학습자의 상생을 위한 모국 설화의 교육적 활용

1) 교수 설계

주지하다시피 대학은 학술적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동시에 전달하는 교육적 공간이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교수 매체와 새로운 보조 도구들이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연구와 교육 활동의 대부분은 문자로 된 텍스트를 매개로 한다.²⁷⁾ 가령,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강의 자료나 PPT에서부터 교재나 부교재 외에도 과제 작성을 위해 찾게 되는 각종 매체나 문헌 자료는 주로 ‘일독’(一讀) 행위와 연관된다. 곧 학습자는 양서(良書)를 읽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자신의 논지를 정립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한 근거 혹은 단서를 찾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생각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쓰기’에 반영시킨다.

27) 공성수·이요안, 「자료기반 글쓰기(Source-Based Writing)를 통한 읽기-쓰기 통합 교육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11~212쪽 참조.

그리하여 대학 내 이른바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은 구태여 ‘쓰기’로 명명되는 강좌명과 관계없이 전공·교양 불문 다채롭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학 내 작문 교육을 위한 글쓰기 강좌가 필수 교양 교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글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이 학문적 지식 창출과 전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고는 국내외 학습자를 통합하는 쓰기 교육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설화 텍스트의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수업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고자 한다.



〈그림 1〉 국내외 학습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에서 설화의 활용 절차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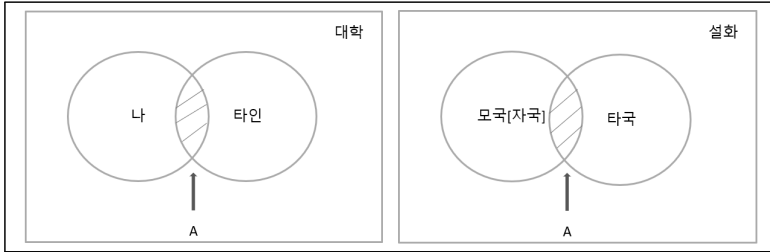
쓰기 교과는 학습자의 기억과 경험, 사고, 감정 등을 어떠한 전략과 방향

28) <표 6>을 주차별 강의 계획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1주차: 강좌 소개 및 안내 | 8주차: 중간시험 |
| 2주차: 자아 정체성 탐색 및 진단 | 9주차: 설화의 현대적 상상력 |
| 3주차: 소통을 위한 스토리텔링 | 10주차: 문학 속의 신화 |
| 4주차: 신화란 무엇인가? | 11주차: 신화와 영화 |
| 5주차: 건국신화와 무속신화 | 12주차: 신화와 애니메이션 |
| 6주차: 제주의 여성 신화 | 13~14주차: 수강생 발표 |
| 7주차: 자아찾기와 통과의례 | 15주차: 기말시험 |

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학습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첫 강좌의 시작은 학습자 스스로와 그 주변을 성찰하는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자기표현이 특별히 강조되는 오늘날, 자아의 정체성과 위치를 탐색하고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를 대면하고 ‘진단’하는 일은 바로 한 개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글쓰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곧 학습자 개개인 놓인 상황, 여건, 환경 등은 그 자체로 쓰기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때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준비이거나 스토리텔링 과정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 물론이다. 이렇게 도입되는 수업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성찰의 결과를 타인과 소통·공유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삼으며, 수업 후반부 발표 수업을 위한 연습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읽기 기반 텍스트’를 통해 나와 너의 차이를 이해 학습하며 그 안에 담긴 공통분모를 찾는 단계이다. 먼저 자아 성찰 및 진단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면, 이 스스로의 성찰 또는 정체성 탐색을 ‘확장’하면 종래 내가 존재하는 주변 여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학습자의 통합 수업에서는 그들이 자리한 시공간 속의 제반 요소들을 활용하기 쉽다. 예컨대, 국가·언어·민족·지형·환경·역사·생활문화·가치의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설화가 원형성과 근원성이 담긴 다층적인 텍스트로서 상이한 국가별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던 앞서의 논의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자아 성찰/탐색 과정과 설화 문학 학습의 교육적 연속성

개인으로서의 나는 타인과 다른 시간, 환경, 문화, 대상을 체험한 이질적 인[고유한/개별적] 존재이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일련의 비슷한 과정을 겪고 경험하면서 동질적[보편적/공통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학습자가 초·중등 교육과정을 한국에서 이수하였던 외국에서 하였던 예외일 수 없다. 이를 확장해 보면, 설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롤랑바르트가 신화는 파롤(parole)이고 의미작용의 한 양식이라고 했던바,²⁹⁾ 개별 국가의 독특한 신화구조를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위적인 것이다. 가령, 홍수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서는 홍수신화가 창조신화의 일부분으로 등장하고, 건조한 사막의 척박한 기후는 인간을 미이라로 만드는 영혼불멸의 사상과 피라미드로 신화화하였다.³⁰⁾ 북유럽의 극야와 백야의 자연환경과 거대한 숲은 이그드라실이라는 우주목을 만들었고, 신들의 황혼 곧 세상의 종말이라는 라그나로크를 신화의 세계에서 그려내고 있다.³¹⁾ 그러나 신화가 원초적인 이야기로서, 인류가 본질적으로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한 이야기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켄을 같이한다.

29) 롤랑 바르트, 정철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16~18쪽 참조.

30) 표정옥, 「한국 여성 신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욕망과 문화적 의미작용 연구 - 제주도 무속신화 속 여성의 현대적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6,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393쪽 참조.

31) 표정옥(2011), 위의 논문, 393쪽.

<그림 2>에 나타난 A의 교집합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생태학적 기회와 제약의 차이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 또는 문화권을 형성한다던 마빈 헤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형성된 것은 덩고 박한 서식 환경 때문이다. 돼지는 몸을 보호·유지하는 털이 없고, 땀을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육을 위해서는 그늘진 환경과 풍부한 물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돼지는 장거리 이동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젖을 제공하거나 운반/수송의 기능도 할 수 없다. 흔히 돼지가 잡식종이라고 하지만 (반추동물처럼 섬유소가 주성분인 풀, 나뭇잎보다는) 섬유도 형성이 낮은 나무열매나 과일, 식물뿌리, 곡물 등을 먹일 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경쟁관계에 있다. 결과적으로 중동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은 고기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활용이 현저히 부족하며, 문화와 자연 생태계의 조화된 통합성을 깨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³²⁾ 금지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지리·환경적 요건은 한국의 신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토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산림국 중 하나이다. 한국의 대표 신화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아버지 환인의 도움과 허락을 얻어서 하늘에서 태백산(太白山)으로 내려오는 것이나 단군왕검이 1908세의 수(壽)를 누린 끝에 아사달산에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다는 일화에서도 산은 건국의 주체를 신격화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소재이다. 또 <주몽신화>에서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는 곳이 웅신산(熊神山)이라던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金首露)가 구지봉(龜旨峰)에서 내려왔다는 등 우리 신화의 세계에서 산은 신성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한국의 신화에서 산은 신성 공간인 하늘과 인간 세계

32) 마빈 헤리스, 박종렬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17, 74~78쪽 참조.

인 땅을 경계로 중간계가 된다. 흔히 산악신앙(山岳信仰)과 연계되고는 하는데, 직관적 관점에서 볼 때도 산은 구름을 뚫고 하늘에 맞닿아 있는 가장 높은 존재이다. 예로부터 산은 천신이 인간세로 내려오는 기점이 되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지금도 한반도 각 지방 산에서는 마고할미 혹은 노고할미, 개양할미 등으로 불리는 창조신의 전설이나 민담이 과편화되거나 변형된 채 전승되고 있다. 산신 마고를 모시는 사당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³³⁾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의 설화를 문화 생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산은 인간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유용성을 지녔으면서도 동시에 맹수의 위협과 물리적 위압성을 지닌 외경의 공간기도 하다. 추정컨대, 한국 설화에 나타난 동물 중, 유독 호랑이와 곰을 소재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 깊은 것은 아닐까?

한편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설화는 어떠한가? 흔히 삼다도(三多島)라 불리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독특한 신화구조를 형성시키는 원인이 된다. 주지하듯, 오늘날 제주는 한국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 받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척박한 땅으로 악명 높은 조선의 대표 유배지였다. 제주의 열악한 토양과 변화무쌍한 기후는 도민들의 생활 터전을 바다로 옮기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제주를 표상하는 해녀를 떠올린다면,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 유독 이 지역에 여신의 흔적이 많은지 이유를 찾기 충분하다.

결국, 설화는 전승집단의 실생활과 유착된 의식의 소산이며, 그곳에 민중은 자기 삶의 모습[사유와 표현]을 생생하게 남겨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3) 한국의 설화에는 마고할미, 노고할미, 설문대할망 등으로 불리는 대모신(大母神)과 관련 깊은 여신의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고대 국가 성립 이후 여신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특히 유교사회로 진입하면서 미신으로 치부되거나 배척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남아 수호신으로 대접받기도 하며, 지역 산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사당을 세운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39~122쪽 참조.

학습자는 개별 설화에 대한 내용 지식의 학습과 동시에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담화 구조를 분석하여 일종의 형식(forme)을 체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읽기’의 과정은 설화의 보편성을 확인하며, 동시에 한국/자국[모국/타국]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내국인 학습자와 유학생 모두에게 유효한 수업 절차가 된다.

그 다음으로는 (기 학습한 지식과 형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쓰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방안이다. 쓰기 활동은 학습자가 대학 내에서 습득하는 학문적 지식을 가공하여 재산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 불가결 요소가 된다. 앞서 학습자가 읽기의 절차를 통해 설화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면, 교수자는 이를 발판삼아 다양한 쓰기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설화가 오늘날 우리의 세계 또는 삶에 여전히 지속성을 갖는 부분을 찾고 어떠한 방향에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앞 장에서 서술한 디즈의 <모아나>의 사례와 같이, 원본의 재해석·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자리매김한 콘텐츠가 단적인 예이다. 또 아동출판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전래동화 등의 성격이나 동향/변화 양상에서 주목할 점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과제의 한 방향이 된다.

둘째, 설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신화소를 몇 가지 언급한 뒤, 이를 문학적 소재로 활용한 이유를 문화 생태학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다. 가령 동북 아시아 지역 민족의 시조신화 등에서 익숙하게 등장하는 특정 동물[호랑이, 곰]의 문화적 친연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물’이 지닌 다양한 이미지는 여타 국가의 이야기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만주신화 『천궁대전』에서는 만물을 창조한 여신 ‘아부카허허’는 물거품에서 탄생하며, 그리스로마신화에서의 물은 ‘나르키소스’의 일화를 통해 수선화³⁴⁾의 유래를

34) 아래에 제시된 수선화의 생태 속성을 살펴보면 자기애를 뜻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과의 언어/문화적 연결점이 보이는 듯하다. “원래 나르키소스는 ‘무감각’을 뜻하

상상하기도 한다. 물 신화소의 차용은 현대물에서도 두루 활용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대표적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기서 일본의 근원적 심상을 형성하는 신도적 애니미즘 가미신앙과의 관계에서 조명³⁵⁾하는 연구가 흥미롭다. 일본의 가미(神)는 동물, 식물뿐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한 만물에 신격을 부여된다. 그리하여 일본은 자국민 스스로 섬기는 신이 야오요로즈노가미(八百万の神)라고 칭할 만큼 팔백만 신들이 사는 신의 나라[神國]다. 일본 열도(列島)는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 네 개의 큰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이다. 지질학적 특성상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리라. 그러므로 이 지역에 거주했던 오래된 인류는 유달리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에게 전통적 가미신앙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이자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는 단서인 셈이다. 그렇다면, 신화와 전설로 덮여 있던 가미는 사실 아주 실제적이고 자연적인 천재지변을 설명하려는 상상력의 소산이다. 이

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수선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마비시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분 때문에 수선화꽃을 꺾어 다른 꽃들과 함께 물에 담그면 다른 꽃들마저도 해를 입는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이 잘못해 수선화 구근을 먹었다간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독성은 신화 속에서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 주변의 관심을 모두 거부한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박원순, 「<박원순의 지식카페>연못에 비친 자신과 사랑에 빠져 죽은 신화.. ‘시인의 꽃’으로 환생」, 『문화일보』 2021-4-19, <https://www.munhwa.com/news/view.htm?no=2021041901031812000001&w=ns> (2024-02-14 접속).

- 35) 조혜정의 연구(「미야자키 하야오의 신도적 애니미즘 연구 :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66, 한국영화학회, 2015, 216쪽)에 의하면 ‘신도’(神道: 신을 섬기는 도리)는 “일본의 전통종교로서 그들의 문화적 뿌리이자 생활습속”이며, “모든 물체 안에 영이 존재한다고 믿는 원시자연종교의 형태로서, 애니미즘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 일본인의 신 “가미는 유일하거나 완전한 신이 아니라 다양하고 변덕스러우며 기괴하기까지 한 존재”라고 설명한다.

러한 조망을 하다 보면, 섬나라 간 문화/문학의 특성의 비교문학적 연구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밖에도 교수자의 전공, 역량에 따라 쓰기의 과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³⁶⁾

마지막 절차는 발표이다. 쓰기 교과에서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완성된 글을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수정하는 퇴고의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논점이 명확해지고 그 구조가 체계화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기-읽기-쓰기-말하기의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기에, 대학 교육에서 이러한 훈련은 필수적이다. 학습자가 강의를 듣고 텍스트를 읽고 주어진 논제에 알맞은 글을 쓰는데 머무르지 않고, 말로 공론화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거나 채워가면서 사유를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유념할 것은 학습자의 발표에서만 상호 피드백[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 1>의 전 과정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은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2) 설화 기반 학습자 과제 분석과 교육적 가치 제고

이 장에서는 교수 설계를 기반으로 실제 학습재[유학생/내국인 학생]의 발표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습자를 위한 설화 기반 쓰기 교육 활용에서 교육적 가치 제고가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볼 것이다. 먼저, ‘뱀’을 소재로 유학생이 기획한 발표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소개한다.

36) 각 나라의 민족적 문화적 특수성이 이해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특성을 대표하는 설화군들의 신화소, 화소가 어떻게 한국의 설화와 비교될 수 있을지 등 다각도의 고민이 요구된다.

설화 속 뱀의 형상

목차

- ① 중국 신화에서 뱀에 관한 이야기
- ② 뱀에 대한 유럽의 이야기
- ③ 왜 세계 신화의 대다수가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중국 신화에서 뱀에 관한 이야기

중국 고대 뱀에 관한 이야기에는 나쁜 이미지도 있고 좋은 이미지도 있었다.

● 나쁜 이미지: 뱀의 요괴

신화의 전승에는 뱀이 성인행으로 변신한 요괴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된다. 중국 최초의 뱀 요괴 이야기는 뱀의 요괴를 인연으로 바꿔놓은 갓뱀, 뱀은 평소 냉혹하고 무정한 노름을 즐기니 요양한 처대를 지니 이혼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화들은 단지 신비롭고 무섭다고 생각하고, 귀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뱀은 한 번 정애가 되면 미인을 뱀해 짓낸 남자를 온갖 수법으로 피어 인간세상의 남자들을 모두 소리뜨리고, 결국 남자를 죽이거나 잡아먹는다. 이러한 이야기의 우의 중 하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인데, 특히 젊은 남자들은 미색을 욕망하지 말고, 다른 욕정에 몰두하지 말고 충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대가 표리부동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신화에서 뱀에 관한 이야기


● 좋은 이미지: 뽕사(媬蛇)와 백사전(白蛇傳)

뽕사(媬蛇, 고서(古書)에서, 운무를 일으키며 풀을 갉고 난다고 하는 뱀.)

중국 민간신화에는 날 수 있는 뱀이 있다. 중국 고대 문헌에 이 뱀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산수(山海經)」라고 불리는 것이다. 중사(中事)의 단어는 《순자(荀子·권학(勸學))》에서 媬蛇(無頭而尾, 媬蛇(媬蛇)는 기뻐하는 즉 비뚤은 칭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구름과 안개를 타고 하늘에 날아다닐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 천년에야 하고 몸무게는 상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그리고 뽕사(媬蛇)와 백사전(白蛇傳) 그래서 천후(天後)의 분신으로 여겨진다.

백사전(白蛇傳)

백소정은 천 년 동안 수행했던 사신이다. 백소정은 정성산과 미산에서 도를 깨달았고 법술이 뛰어나다.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친성적으로 착하며, 의술로 세상을 구제하고 백사를 행복하게 하며, 궁전이 무량하다. 백소정은 허선에게 1700년 전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허선에 반했다. 그들의 사랑은 변절이 없다. 금산 승인 법제(法界)가 허선을 교육하며, 그 부분은 이단 시키고, 허선은 정인을 듣고, 집을 버리고 금산으로 도망갔다. 백소정은 금산을 가서 허선을 찾아 법해와 싸우다가 불이 금산을 뒤덮었다. 법제는 그를 감한 힘으로 갈라놓아 백소정을 뇌봉(雷峰塔) 아래로 놓았다. 20년 후 백사의 아들 허사원 정황하고 사후로 가서 뇌봉탄 앞에 재사를 지낸다. 허원이 감동시었고 백사는 마침내 탈을 벗었고 고선반으로 돌아왔다.



유럽 신화에서 뱀에 관한 이야기

● 우르보보스

우르보보스(고리를 물고 있는 뱀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기호로, 대체로 한 나라의 뱀이 자신의 꼬리를 삼키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용과 고리를 형성한다(때로는 자기를 꼬아먹는 모양, 즉 아라비야 숫자인 '9'의 모양).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삼킨 자이다. 이 기호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한대' '순환' 등의 의미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다. 근대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 사실 인간 심리의 원형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유럽 신화에서 뱀에 관한 이야기

●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에서 사신(蛇神) 로키의 세 아들 중 한 명인 거대한 뱀인 요르문간드는 온 세상을 뭍으로 감싸고 인으로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는 거대한 형이었다. 또 북유럽의 전설적인 영웅 라그나로크 이야기에는 성장해서 자신이 꼬리를 물어뜯는 비늘발레가 등장한다. 라그나로크는 나중에 울리크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 한쪽 눈에 흰 뱀이 나타났다. 그 흰 뱀은 울리크의 눈동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자신의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눈에 뱀이 있는 시계'로 불린다.

왜 세계 신화의 대다수가 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 뱀의 분포가 매우 넓으며, 이것은 사회 기반이다.

● 둘째, 뱀의 독성이다.

● 뱀이 허물을 벗을 수 있고, 나이가 사람들은 뱀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치는 승배를 생기다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 사례〉

해당 학습지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자국 신화 속에 나타난 뱀의 양면적 속성과 유럽 신화 속에 나타난 뱀 이야기를 소개한 뒤, 세계 다수의 신화에서 뱀 화소가 쓰이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범세계적으로 등장하는 상징 중 하나가 뱀이라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기실 중국 창조신화 속의 여신 여와는 새끼줄에 황토를 묻혀 인간을 만들고 결혼제도를 만든 신으로 숭배되는데, 그 하반신이 뱀의 형상이다. 인도 신화나 마야 문명권에서도 뱀은 숭배의 대상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뱀 화소는 자주 등장한다. 동서양의 신화, 문화예술 속에서 뱀은 다산·창조·재생·변화·지혜·욕망 등을 상징하는데, 뱀의 왕성한 번식력과 개체수 그리고 허물을 벗는 습성과 관련 깊다. 꼬리를 튼 뱀이나 자기 꼬리를 문 채 몸뚱어리로 둥근 원을 그린 뱀의 형상은 영원함 또는 영속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이다.³⁷⁾

그러나 학습자의 지적처럼, 옛이야기 속 뱀이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구약성서에서 뱀은 태초의 여인 이브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유혹하며, 기독교 성경에서 뱀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사악한 존재로 표현한다. 저주받은 메두사의 머리카락이 또한 뱀이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설화에서 뱀은 양면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선정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문제이다. 학습자는 중국의 신화에 나타난 뱀의 긍정적인 모습을 <백사전>³⁸⁾을 통해 제시하였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뱀이 긍정적인가에 설명은 소략하였다. <백사전>에서는 뱀을 ‘요괴’(妖怪)로 지칭하는바, 어원적인 문제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왜 뱀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요구된다.³⁹⁾ 뱀을

37) 오애리, 「<2013 설특집-뱀의 문화적 상징> 중국, 뱀 둘 꼬리튼 복희·여와, 풍요·다산 의미」, 『문화일보』 2013-02-07,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701032230071001> (2024-02-14 접속)

38) <백사전>은 중국인이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중국 4대 민간전설 중 하나이다. 전래동화·고전소설·경극·연극·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재화되는 중국의 대표 이야기이다. 두전하, 「중국 민간전설 『백사전』의 전래동화화에 관한 고찰」, 『동화와 번역』,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140쪽 참조.

39) <백사전>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면서 빗적 고찰을 시도한 두전하의 논의(위의 논문,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수 많은 설화 중, 왜 <백사전>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텍스트 선정의 문제의식도 추가된다. 관련하여 학습자 발표에서 뱀의 부정적 요소를 설명하는 신화 텍스트 소개는 전무하다. 원자료 출처에 대한 글쓰기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둘째,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 문제이다. 문장구조, 조사, 어미, 어문규범(문장부호, 띄어쓰기)의 문제점과 문어체&구어체의 사용이 혼용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언어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는 구성원 모두가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곧 문체에서 내국인 학습자 또한 왕왕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어체를 준수할 것과 그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다. 셋째, 구조의 적절성과 창의성 문제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뱀의 양면적 속성은 중국 신화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타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학습자가 소개한 꼬리를 물고 있는 뱀[우로보로스]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피드백을 요한다.

한국 신화에도 뱀에 관한 신화와 전설이 적지 않으며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확인된다.⁴⁰⁾ 이에 제주의 여덟 뱀 여신과 관련한 <칠성본풀이>를 소개하고 뱀의 습성과 관련된 문화생태학적 논의를 진행한다. 가령, 뱀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존재해 온 동물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162~164쪽)에 따르면, 주인공 백낭자는 처음에는 악한 뱀 요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선한 이미지로 변모하였다. 여기서 <백사전>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변모해 온 작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사전>의 역사적 수용과 변모 양상에 대한 언급은,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옛이야기가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임을 해명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 40) 조현설의 연구(『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246~255쪽)에 따르면, 제주도에 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 지역에 뱀이 많은 것, 그래서 뱀 신앙이 활발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뱀 신앙과 관련하여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된다. “뱀을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것은 단지 잡신 하나를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만은 아니다. 그것은 뱀과 여성으로 상징되는 낳고 낳는,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창조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대지가 지닌 재생의 리듬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또 뱀의 서식지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에 걸쳐 발견된다는 점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야기 화소로 활용한 까닭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뱀의 독은 인간을 죽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약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주지시키는 가운데 관련 지식의 배경을 넓히고 동시에 옛이야기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종래 학습자 발표 후, 수업 구성원 함께 이루어지는 피드백 시간은 발표자뿐 아니라 청중 모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지식전달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요컨대 학습자의 발표는 수업의 또 다른 교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린 상호 학습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는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연대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수업 구성은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인 쓰기 활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다음은 내국인 학습자의 발표 사례이다. 이미 강의에서 학습한 바 있던 ‘동굴의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동굴의 의미를 재구하고자 한 시도가 엿보인다.

동굴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서

1. 서론


역사의 기록, 임어 생산물의 창고, 거주지, 신성한 장소 등

→



2. 동굴의 이미지

어둠



생명




공존


3. 동굴의 다양한 모습

- 주거지, 역사의 기록

주거지 - 사람이 살았던 흔적




역사의 기록 - 동굴 벽화



3. 신성한 장소

- 깨달음의 장소, 기도처

깨달음의 장소




원효는 의상과 함께 태도를 통하여 단란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의상 도중 동굴에서 왕복함을 귀하게 여겼다. 한 발음에 목이 얽라 돌은 일제 파졌는데 아침에 다시 찾아가보니 해골에 끈 놓아라는 것을 알고서 "진리는 결코 완연의 것을 것이 마디마디 자기 지신에게서 찾아야 함다. 이는 깨달음을 위하여 의상과 깨우쳐서 놓아왔다 마디서 동굴 안에서 자신이 알고자했던 신의의 보편에 의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3. 동굴의 다양한 모습

- 자궁을 의미하는 동굴


동굴=자궁




4. 단군신화를 통해 살펴본 동굴의 의미

- 죽음과 생명

죽음



생명



4. 단군신화를 통해 살펴본 동굴의 의미

- 통과의례

꿈이 모양이와 함께 동굴로 가는 것

인내와 고통의 시간

꿈이 울너기 되어 동굴 밖으로 나올

<내국인 학습자 발표 사례 1>

학습자는 옛이야기에 나타난 ‘동굴’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동굴의 1차적 속성에 주목한다. 동굴은 어둡지만 동시에 외부의 침입이나 기후변화로부터 인간/생명을 보호하는 안식의 공간이다. 실제 동굴은 고대 인류의 주거지였으며, 예술/역사의 기록 현장이자 잉여 생산물의 창고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동굴의 이미지는 생명을 품고 있는 자궁을 떠올리게 한다. 자궁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웅녀도 그러하다. 꿈이 인간으로 또는 시조모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의식/절차가 필요하다. 인간의 삶의 중요한 국면에서 행해지는 의식 이른바 ‘통과의례’⁴¹⁾이다.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즉위식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의식은 주로 인간의 삶의 중요한 변화나 전환 시기를 기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종종 의식적인 행위와 함께 예식이나 축제로 진행된다.

41) 통과 의례(rites of passage)는 개인이 한 생애단계에서 다른 생애단계로 이동할 때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의식이나 행사를 말한다.

그런데 통과의례에는 ‘분리-전이-통합’⁴²⁾의 세 가지 주요 단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과의례는 문화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패턴은 동일하다. 발표자는 웅녀의 이야기를 통과의례에 접목시켜 분석하고자 했다. 곧 동굴을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질서들의 경계로 상정한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꿈이 웅녀/시조모가 되는 과정에 쭉과 마늘을 먹으며 인내와 고통을 시간을 견디는 공간은 바로 동굴이다. 꿈은 기존 사회를 떠나 동굴에 입성하는 ‘분리’의 단계를 거쳐 극도의 시련을 겪는 ‘전이’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존재 웅녀/시조모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학습자의 발표 사례를 살펴보자. 발표자는 한국의 여산신 마고할미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매체에서 어떻게 활용/응용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42) 분리(Separation): 첫 번째 단계는 개인이 현재의 상태나 역할을 떠나는 과정으로, 그의 이전 상태에서 떠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이(Transition): 두 번째 단계는 분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의 이행을 나타낸다. 통합(Integration):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상태나 역할에 완전히 적응하고 통합된다.



〈내국인 학습자 발표 사례 2〉

한국의 산신에는 여신(女神)이 많고 이들이 주로 할미⁴³⁾라고 불리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다. 마고할미 계통의 여신들은 모두 창조여신 특유의 거인성⁴⁴⁾을 간직하고 있다. 마고할미의 거인성과 창조적 능력은 지형 창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산천, 섬, 바위와 같은 자연물뿐만 아니라 지석묘, 산성, 다리, 탑과 같은 인공물을 망라한다.⁴⁵⁾ 그러나 『마고할미 신화연구』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의 제의와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창조여신 마고할미는 고대국가의 성립 이후 남성신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변화”되었다.⁴⁶⁾

주락한 여신의 지위는 오늘날 영상매체를 통해 새롭게 부활한다. <모아나>에 나타난 테피타가 단적인 예다. 여기서 제주 여신의 주체적인 면모를 돌아보고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돌아보자. 가령 <세경본풀이>의 농경 신 자청비를 현대물로 각색한 웹툰, 연극, 게임 캐릭터 등을 소개하고 신화가 스토리텔링의 원천임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국가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뱀 화소에 등장

43) 이때의 할미는 늙은 여인을 가리키는 할머니가 아니라, 한+어미의 결합으로 큰 어머니(大母)의 뜻을 지닌다.

44)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45~46쪽은 “창조신의 거인성은 자연의 거대함, 자연에 내재한 초월성에 대한 인류의 상상의 소산이고, 그런 초월적 자연을 의인화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45) 조현설(2013), 위의 책, 46쪽 참조.

46) 조현설(2013), 위의 책, 86쪽 참조.

했던 중국의 설화 <백사전> 경우, 중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재화되며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한편, 발표자는 마고할미가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⁴⁷⁾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호텔 델루나>의 마고신은 이름만 동일할 뿐 마고할미의 거인성이나 지형 창조 능력과는 다소 동떨어진 듯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마고신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소개되고 ‘꽃’을 매개로 등장하는 일화 등으로 볼 때, <바리데기> 신화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오류를 바로잡는 피드백 과정에서 여신의 면모를 다시 읽고, 오늘날 여성의 모습과 비교 대조하면서 진취적 상상력을 부여해 보기를 권장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화’를 활용한 교육 방안은 학습자가 중강이 된 이후에도 적극적 ‘쓰기’와 관련 지식의 학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아래는 본 연구자의 강의 수강 이후, 몇 명 수강생이 제주 신화의 가치를 기획으로 옮겨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에 팀 프로젝트를 후원받은 사례이다.

텀블벅 프로젝트 <환생>은 제주의 무속 신화[본풀이]를 활용한 소설, 동화 등의 창작물이다. 집필 방법은 본풀이 원전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본풀이 속 인물의 관점/시각에서 ‘다시 쓰기’를 시도하며 각 본풀이 원형이 지닌 근본적 질문을 ‘현대적으로 되묻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프로젝트 <환생>이 특히 제주 본풀이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들은 모두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신들도 있지만, 한없이 외롭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신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이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주 신화의

47)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호텔 델루나’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존재하는 영혼들이 쉬는 곳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crowdfunding page on the platform tumbbug. The project title is "무속 신화 플랫폼 [환생]: 끊어진 신성의 회복을 위하여". The current amount raised is 17,429,000 KRW, which is 1742% of the goal. The goal amount is 1,000,000 KRW. The campaign period is from 2021.09.15 to 2021.10.25. There are 711 supporters. The page includes a navigation menu, a main image of a decorated box, and a sidebar with project statistics.

남산과 여산은 아이가 없어 수북불공을 들어 아이를 잉태한다. 어저어이가 태어나 한 살 적엔 어머니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리고, 두 살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리고, 세 살엔 할머니 무릎, 네 살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린다. 다섯 살 되는 해에는 어머니가 죽고 여섯 살에는 아버지, 일곱 살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죽는다. 외삼촌 덕으로 가니 개와 쥐가 먹던 김치가 밥을 주었다. 죽으라고 삼도진 거리에 던져버리니 율령에서 부영새가 내려와 한 날개는 잡고 한 날개는 잃으라고 한다.

‘지장 본풀이’를 아시나요?

대개 신화라 하면 호칭한 영웅의 행적만 짚말 이야기들 떠올립니다. 그러나 위 **본풀이**의 주인공인 ‘지장’은 **불운한 인물**입니다. 존재만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을 죽이는 ‘지장’을 영복한 끝말의 영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듯 제주 무속 신화인 ‘본풀이’에는 영웅이 아닌 다른 인물들도 신으로 존재합니다. 불행한 인간, 외로운 인간, 어찌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신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생>은 존재만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을 죽이는 지장을 — ‘죽음을 먹고 사는 지장’으로 ‘오늘’이 사라진 디스포피아에서 환생시킵니다.

| 프로젝트 소개

<환생>은

기존 신화 기반 원소멀티유즈 콘텐츠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신화 원형은 유지하되, 현대인의 욕구에 맞춰 재해석한 ‘신화 다시 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곧, 주목받지 못한 채 텍스트 안에 박제된 신화 인물들의 생명의 흔적을 더듬는 작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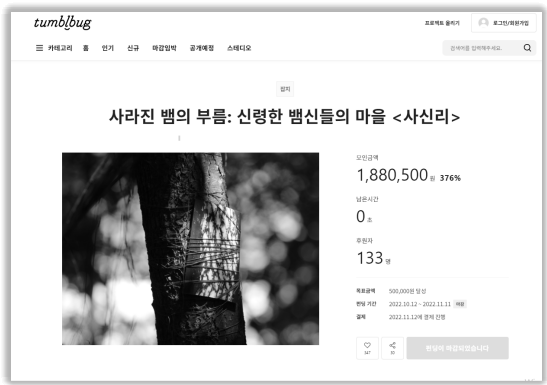
이처럼 프로젝트 팀 ‘본향담’은 적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가장 인간성을 상실해갈 때,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텀블벅 프로젝트 펀딩 사례 1[팀 기획]48)

신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풀이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화는 비단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생>의 기획의도는 서구적 사고 방식의 경계와 신화의 본질적 의미를 돌아보는 것이다. 동양인이지만 서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음을 자각하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어떻게 신화가 대답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학습자들은 몇 달간의 스터디와 본풀이의 재구성 방식과 본풀이 원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한다.

이런 팀 프로젝트 사례는 다시 개인 프로젝트로 나아가게 한다. 다음은 팀 프로젝트 이후 해당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기획한 텀블벅 사례이다.



'뱀'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보통 부정적이고 사악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뱀은 치유, 영생 등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에서는 '업신앙'이라 하여 명과 북을 빌어주는 뱀을 모셨습니다. 일만팔천 신의 성이라 불리는 제주는 수많은 뱀 신화를 품고 있습니다. 저희 초감제는 **제주의 뱀 신화**에 주목했습니다.

제주 신화에서 뱀은 **풍요와 부의** 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뱀 신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뱀은 대개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뱀 신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본 프로젝트, <사신리蛇神里>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텀블벅 프로젝트 펀딩 사례 2[개인 기획]49)

48) https://www.tumbbug.com/rebirth_bonhyangdang/story
 49) <https://tumbbug.com/chogamje>

프로젝트 <사신리蛇神里>는 뱀의 저주를 풀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기획자의 소개에 따르면, 저주를 풀기 위해 뱀신들의 마을 사신리(蛇神里)로 향한 주인공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뱀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신리에서 뱀 신화를 마주하며 차차 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의 뱀 신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한다.

설화를 활용한 교육의 이점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재가공하여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삼도록 돕는 유연한 매개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뱀을 소재로 한 외국인 유학생의 산출물도 훌륭한 교안이 되며, 다른 학습자의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 위와 같은 사례는 국내외 학습자를 위한 통합 교육에서 설화의 활용이 이질적 문화 차이를 이성적으로 이해 학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증언한다.

5. 나가며

오늘날 국내 대학에는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강의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다. 개별 학교 상황 또는 교과목의 특성이나 교양과 등에 따라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전용 분반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때 국제 학생들의 국내 대학 유입 유형은 학점 교류 차원에서의 교환학생과 외국인전형 입학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개별 여건, 학습도에 따라 다양한 층차를 보이게 된다. 이처럼 유학생 간에도 한국어 학습 정도에 따라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이러한 국제 학생들이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전공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스펙트럼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접점을

찾기는 더욱 요원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공과 국어국문학 수업에서, 내외국인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를 좁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설화’ 텍스트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했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의 활용을 제한하는 연구들에서도 설화가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거론한다. 예컨대 국내 학습자 중,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자라면 단연컨대 <단군신화> 또는 <주몽신화>를 모를 리 없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역시 소속 국가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국의 신화가 존재한다. 가령, 나라의 건국과 관련한 신화, 혹은 창세기도 학습자들에게 이질감 없는 공통적인 설화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 분포 양상을 보이는 설화 <구러딩딩신선비> 또한 비근한 예가 된다. 곧 설화 텍스트의 활용은 만국의 설화가 지닌 근원성과 원형성을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고유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연구는 연구자 개인에 의해 선형적으로 도출된 개별 교과목의 효과적 교육 방안과 사례이다. 이러한 학습 방안은 지속해서 유입되는 대학 내 외국인 학습자 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문제로 확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국내 유학생 유입 통계와 관련하여 연도별 학업중단을 통계나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추이로 볼 때, 유학생 수는 분명 늘고 있지만, 학업을 제대로 정규 과정에서 마쳤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정보 습득 미숙일 수도 있겠으나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어떠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에 대한 다면적인 고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학생 시스템의 거시적, 미시적 문제들을 문화적·학술적·기술적·제도적·국가적으로 바로잡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유학생에게 한정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유학생을 지도하는 교강사의 입장과 처우, 교육현장의 현실이나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 총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의 위상은 유학생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공성수·이요안, 「자료기반 글쓰기(Source-Based Writing)를 통한 읽기-쓰기 통합 교육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11~254쪽.
- 김지하·조옥경·문보은 외 3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20, 1~256쪽.
- 김진민·김재영, 구상희 외 1인, 「국내외 학생들의 상생(相生)을 위한 교수법 개발」, 『경상논집』 39, 고려대학교 세종경영연구소, 2019, 45~76쪽.
- 두전하, 「중국 민간전설 「백사전」의 전래동화화에 관한 고찰」, 『동화와 번역』,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139~170쪽.
-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1~246쪽.
- 마빈 헤리스, 박종렬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17, 1~364쪽.
- 민혜영, 세린즈, 박지훈, 「대학 국제화의 진동: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소통 부재 및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 한국 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5~32쪽.
- 박근영·김본영·오진영,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조사방안 탐색」, 한국 교육개발원, 2022, 1~83쪽.
- 서경식,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들베개, 2006, 1~231쪽.
- 양민정, 「전설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장자못전설>을 중심으로」, 『世界文學比較研究』 27, 韓國世界文學比較學會, 2009, 23~43쪽.
- 오세정, 「한국 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109~136쪽.
- 오세정, 「신화 다시쓰기와 치유 과정으로서의 정체성 탐색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017)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52,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117~148쪽.
- 이진선·강영숙·박시균, 「한국어 교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5,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1, 96~133쪽.
- 전형길, 「교양교육과정에서 내·외국인 협업 수업에 대한 연구: A대학의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9, 381~410쪽.
-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1~294쪽.

-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1~309쪽.
- 조혜정,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도적 애니미즘 연구 :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66, 한국영화학회, 2015, 209~231쪽.
- 최종오, 「전문대학의 국제교류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12, KNU기업경영연구소, 2021, 135~155쪽.
- 표정옥, 「한국 여성 신화에 나타난 양성성의 욕망과 문화적 의미작용 연구 - 제주도 무속신화 속 여성의 현대적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6,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387~413쪽.
- 한새해, 「외국인 대학생의 글쓰기 향상을 위한 설화의 비교문학적 활용 방안」, 『국제어문』 83, 국제어문학회, 2019, 207~232쪽.
- 한새해,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259~293쪽.

교육부 <https://www.moe.go.kr>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

텀블벅 <https://tumbbug.com>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ss.kedi.re.kr>

ABSTRACT

Strategies for Educational Use of Folktale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between International and Korean Students

Han, Sae-hae

This study notes that the use of folktales, especially among classical literature, can be used as an interesting course to converge and accept both domestic and foreign learners at the qualitative and academic level. As the influx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domestic universities increases, the number of lectures taken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is also increasing. However, in the field of universities, there is an inevitable educational gap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In this situa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educational use of folktales maximizes the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and enables mutual communication. The text used at this time can be selected not only from Korea but also from other countries/mother countries, and the student actively learns the story through the process of 'reading-listening-writing-speaking' with the instructor. It is judged that such a learning plan can confirm the universality of the old story fo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ents and expand it to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ity and uniqueness of Korea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by introducing specific lecture plans and related materials, and analyzing presentations of learners submitted as final results, we will discuss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direction that this folktales education implies.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students, folktales, writing education, mutual understanding

논문투고일: 2024.03.31.

심사완료일: 2024.05.06.

게재확정일: 2024.05.08.